



# Simpac

2025 VOL. 59

통권 59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5년 7월 21일  
발행처 SIMPAC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4층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사보 담당자  
(주)SIMPAC 기획관리부  
이도영 매니저 02-3780-4923  
dylee@simpac.com

(주)SIMPAC 프레스부  
권성안 매니저 032-510-0025  
sakwon@simpac.com

(주)SIMPAC 메탈부  
조솔범 매니저 054-271-8725  
sbcho@simpac.com

(주)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  
신재희 매니저 032-590-8813  
jhshin@simpac.com

(주)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임현 매니저 061-792-8817  
hyunlim@simpac.com

(주)SIMPAC글로벌  
조지은 매니저 053-585-9782  
jejo@simpac.com

(주)SIMPAC글로벌(동부)  
이선미 매니저  
seonmlee@simpac.com

(주)SIMPAC KDA  
장명수 팀장  
ms.jang@simpac.com

## 생각을 여는 하루

- 04 스페셜 테마  
WE CREATE THE FUTURE
- 06 테마 인사이드  
나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 10 멘토링 클럽  
신입사원들을 위한 궁금증 해결 멘토링 시간  
In SIMPAC 프레스부
- 16 팀빌딩 워크숍  
컬러로 소통하고 성향을 들여다보다  
In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 20 심팩 한 컷  
심팩인들의 일상 들여다보기
- 24 프라이빗 클래스  
3년차 직원들과 함께한 '마인드셋 코칭'  
In SIMPAC 메탈부 포항1공장



## 함께 뛰는 심팩

- 28 현장 속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다  
SIMPAC KDA
- 34 ZOOM IN  
· MARTINREA사(社) 임원단 방문,  
당사 제조시설 견학 및 MOU 체결  
· PERFUMER H POP-UP AT 10 CORSO COMO SEOUL  
· SIMPAC그룹,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 38 NEWS  
뉴스 단신



## 마음을 나누는 우리

- 42 찾아가는 클래스  
실무에서 바로 쓰는 AI 활용법  
In 여의도 심팩빌딩
- 46 트립 내비게이션  
열차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
- 50 직장인 성장 노트  
'일잘라'의 비결, 단순하게 효율적으로
- 54 북클럽  
유명인사들이 선택한 책, 셀럽의 서재
- 56 TREND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물성매력
- 58 우체통  
독자 참여 이벤트



# we create THE FUTURE



## 혁신과 성장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

SIMPAC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발전의 최전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으로 미래를 창조해왔습니다. SIMPAC은 국내 프레스&메탈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제 SIMPAC은 국내 시장을 넘어 프레스&메탈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신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SIMPAC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계열사를 합류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SIMPAC을 위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사보에 담았습니다. SIMPAC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나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하는 나,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조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한 키(key)는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 역량 성장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기업의 대표를 만났다. 해당 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성장을 축하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대표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같이 성장하는 구성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이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입사 초기에는 비슷했지만, 회사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직원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내적 성장 욕구의 차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어떤 사람은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구성원들은 "지금도 충분한데 왜 더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 차이가 벌어진다.

**둘째 새로운 기술과 업무방식에 대한 적응 속도 차이 때문이다.** 어떤 직원들은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새로운 업무방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변화에 적응한다. 새로운 SW나 업무 툴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신의 업무에 적용한다. 반면 과거 방식에 익숙한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거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셋째 성장하는 조직은 기회와 역할이 확대되기 마련인데, 이때의 태도 차이 때문이다.** 어떤 구성원은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 짓지 않고 확대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새롭고 더 다양한 업무, 더 어려운 업무에 도전한다. 반면 어떤 직원들은 과거의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시된 일만 반복한다.

**넷째 빠르게 성장하는 인제는 자신의 비전을 회사의 업무와 연결시킨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에서 성장하려 한다. 반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구성원은 업무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에 성장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

물론, 직원들의 성향과 태도만으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리더'와 '조직문화'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훌륭한 리더를 만난 구성원들은 성장 과정을 코칭 받고 피드백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직원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리더를 만나거나, 그런 기업 문화 속에 있는 경우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신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키는 무엇일까?



###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위한 키는?

**첫째 전문가가 되려 하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요리사 에드워드 리는 세계최고 수준의 셰프인데, 그는 22살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30대에 이미 최고 셰프로 인정받게 된다. 나는 의문이 생겼다.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60년 이상하셨는데 왜 셰프가 되지 못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전문가와 숙련가의 차이이다. 짧은 기간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나 쉬운 것을 오래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운 것을 그저 오래해왔기 때문이다. 자신과 조직 모두 성장하려면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마인드로 직장생활을 하자.** 예전에 회사에서 세무 서비스를 받게 되어 한 세무사가 방문했다. 그녀는 내게 "얼마전까지 회사에 다니다 최근 창업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어떻게 창업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입사할 때부터 목표로 했단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일부러 어려운 일, 까다로운 업무에 많이 도전했다고 한다. 어차피 창업을 하려면 다양하고 많은 어려운 경험들을 해야 하기에 미리 회사에서 배우고 경험한다는 마음이었다고. 흥미롭게도 그런 태도로 일을 하니 회사에서 매번 우수 사원상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회사를 나와 독립했지만 회사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프로이자 기업가라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스스로도 크게 성장하고 회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끝없이 학습하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이제 10년 전의 지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신이 어떤 학과를 나왔으며, 과거에 어떤 지식을 배웠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습능력'이다.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고 배우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AI 시대를 맞아 벌써부터 AI가 업무 방식을 변혁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어떤 직원들은 빠르게 AI를 활용하여 이미 몇 배의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다. 대만의 최연소 장관인 오드리 탕은 80:20의 법칙에 대해 말했다. 80은 현재의 업무에 몰두해야 하지만 20은 새로운 기술과 업무지식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라는 뜻이다. 즉, 20%의 시간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 PROGRESS



물론, 성장은 개인에게만 달린 것은 아니다. 회사 또한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 개인의 성장을 돕는 회사가 성장한다

**첫째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공유함으로써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과 성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직의 미션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의 업무 방향 또한 길을 잃기 쉽다. 개인의 업무가 길을 잃으면 개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지 알기 어렵다. 회사의 방향이 분명하고 개개인이 여기에 자신의 업무를 연결시키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둘째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업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함으로써 더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한다.** 구성원들의 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 실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며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방법과 도구를 제공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직원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성장하는 개인 x 성장 기회를 주며 성장하는 조직 =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자.

# 신입사원들을 위한 궁금증 해결 멘토링 시간

In SIMPAC 프레스부문



이번 호 '멘토링 클럽'에서는 인천 부평의 SIMPAC 본사를 찾아가 프레스부문 현장직 및 관리직 직원들을 만나봤다.

조립2반 소속 김태진 선임, 신필재 사원과 서비스사업팀의 원성재, 최동웅 매니저를 만나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눴다.

## 멘토

프레스부문 조립2반 소속,  
기계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8년차  
김태진 선임입니다.

## 조립2반

## 멘티

작년 1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자,  
조립2반에서 기계조립을 맡고 있는  
신필재 사원입니다.



**김태진** 우리 회사에 와서 기계조립 업무를 하게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동안 힘들진 않았나요?

**신필재**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금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선배님들께서 도와주고 가르쳐 주셔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잘 적응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프레스의 종류와 크기, 움직임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요.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선배님들께 이것 저것 여쭙보면서 '프레스'라는 기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필재** 업무 노하우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진**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배들과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입니다. 대화를 통해 어떤 점이 뛰어나고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춰 이론적인 설명부터 실무적 노하우까지 함께 전달해 줌으로써 더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일을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하기 마련인데요. 제 경우에는 실수를 했을 때 선배들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더 나은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요.

**신필재** 사회 생활을 하며 유념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요?

**김태진**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요. 그 힘들음을 나눌 수 있는 직장 동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끙끙대기 보다는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필재** 후배에게 알려주고 싶은 직장 생활 꿀팁이 있을까요?

**김태진** 모든 직장 선배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잘 표현하고,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필재** 프레스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김태진** 회사 내에 비치되어 있는 프레스 관련 책들을 보며 용어 등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선배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실무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연차마다 본인 레벨에 맞는 책을 보며 익혀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필재** 후배 신입사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김태진** 지금까지 아주 잘 해 왔으니 기죽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언제든지 대화 가능하니 부담 없이 다가와 줬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만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김태진** 이번 기회에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신필재** 궁금한 점을 여쭙볼 때마다 모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사업팀

### 멘토

13년차, 서비스사업팀  
원성재 매니저입니다.  
유럽 내 프레스 A/S 관리와  
주요 고객사 대형 프로젝트  
(프레스 이설 및 오버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멘티

2025년 1월 입사한 신입사원 서비스사업팀 최동웅 매니저입니다.  
현재는 고객사로부터 접수된 A/S 요청이나 컴플레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A/S 부품의 수급부터 선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성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가요?

**최동웅** 사실 입사 전에는 프레스 회사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막상 근무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서 선임분들도 정말 다 좋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회사와 팀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좋습니다.

**원성재** 직장 생활을 하며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이 있을까요?

**최동웅** 저는 SIMPAC이 첫 직장인데요.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대학생과 사회인은 기본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다니는 대학과는 달리,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최동웅** 서비스사업팀의 일원으로서 업무에 임하며 명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배님의 업무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빠르게 일을 익힐 수 있을까요?

**원성재**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에요.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하니 혼자 끙끙대기보다는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고, 받은 피드백은 바로 반영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저희 팀 업무 중 70% 정도는 계획에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일인데요. 고객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주시면 이를 바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해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선배들은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좋아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또한, 업무 흐름과 용어를 빠르게 익히려면 선배가 한 업무 내용이나 자료들을 복기하면서 직접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기계 관련 전문 용어들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따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최동웅** 사회생활을 하며 이 점은 꼭 유념했으면 한다 싶은 점이 있다면요?

**원성재** 무엇보다 예의가 중요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예의 없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함께 일하기 힘들니까요. 예의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만큼, 본인을 위해서라도 항상 예의있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 습관이에요. 말로만 기억하면 잊기 쉽고, 커뮤니케이션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작은 회의나 전달사항도 간단히 메모하고 공유하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하니 혼자 끙끙대기보다는 선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고, 받은 피드백은 바로 반영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



**최동웅** 제 나이였을 때를 되돌아봤을 때, 꼭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반대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원성재** 스스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선배들에게 좀 더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실적이 중요한 부서인만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표현해주세요. 시간을 할애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 자료로든 회의 석상에서든 어필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었고요. 일하면서 힘들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조언도 받고 하는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최동웅**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팁이 있을까요?

**원성재** 퇴근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기본 영어회화 강의를 보며 간단한 표현법을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주말에는 '일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스스로 지치면 업무 효율도 나지 않아요. 누구나 마음 속에 업무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정말 힘들 때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선배에게 고충을 이야기하며 공감받고 마음을 안정시키곤 합니다.

**최동웅** 후배 신입사원에게 원하는 점이 있다면요?

**원성재**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같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어요. 제 경우 실수를 했을 때는 일단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고를 드렸어요. 실수를 숨기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지고 수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기록해 놔주세요. 지금 겪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실은 저는 지금도 새로운 업무를 할 때 마다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선배나 관련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상의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성재** 마지막으로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최동웅** 얼마 전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사업팀의 일원으로서 팀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재** 지금까지 최동웅 매니저를 보면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요즘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의미의 MZ세대'와는 거리가 멀고요(웃음). 예의 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실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혹여 실수하더라도 바로 알려주면 선배들이 수습해줄 수 있으니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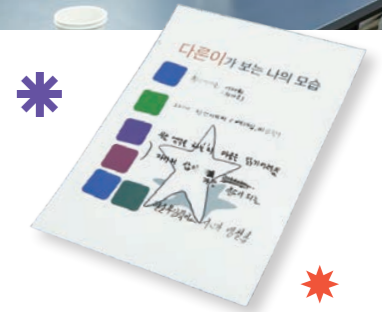


**신입부터 상무까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시간**

이날 워크숍에는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임직원 9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CPA 검사를 통해 본인의 컬러 DNA를 알아보기 위해 워크숍 진행 전 온라인으로 간단한 사전 설문지에 답변을 했다. 결과지를 살펴보기 전,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컬러를 통해 본인과 동료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여러 팀 소속 직원들이 모이다 보니 대화를 많이 안 해 본 사이도 있었지만, 신입사원부터 31년차 상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2개 조로 모여 앉은 직원들은 준비된 종이에 각자의 이름을 적은 후, 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해당 직원과 어울리는 컬러의 스티커를 2장씩 붙이고 왜 그 컬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동료들의 의견을 들은 직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캐치해 준 것 같다', '조금은 충격적인 의견이라 개선을 위해 고민을 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타인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들어 봄으로써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성향별 키워드를 12 컬러로 구분한 스티커를 빙고판에 붙인 후 빙고 게임도 진행했다. 먼저 2개의 빙고판에 각각 내가 친해지고 싶은(되고 싶은) 성향적 특징,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향을 나타내는 키워드 스티커를 붙였다. 첫번째 빙고판에 있는 키워드 중 하나를 골라 '저는 진실한/포용력 있는/생각이 깊은/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아요'와 같이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돌아가며 이야기해봤다. 2개의 빙고판에서 빙고 3개를 먼저 완성한 사람에게는 CPA 검사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 컬러로 소통하고 성향을 들여다보다

In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이번 호 '팀빌딩 워크숍'에서는 색상을 활용해 개인의 성향을 알아보는 CPA 검사를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12가지 컬러와 연결되는 각자의 성격적 특성(컬러 DNA)을 알아보고, 서로의 성향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

**각자의 장단점 및 개선점 파악과**

**팀워크 강화에 도움이 되는 '컬러 DNA' 알아보기**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PA(Color Personality Analysis, 컬러성향분석) 검사는 우리 내면의 성향과 감정을 12가지 컬러와 연결시켜 알아보는 검사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개개인의 본질적인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동료의 성격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동료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의 건설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이어서 '그로잉 웨도우 키워드'를 통해 12가지 컬러 유형별로 구분된 성향 키워드를 그래프에 체크해 봄으로써 본인의 장단점을 확인해 봤다. 이를 통해 자기인식 향상, 객관적 자기 평가, 성장방향 제시, 대인관계 개선, 자기수용 증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본인의 성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료는 어떤 성향의 동료를 원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컬러로 알아보는 나와 동료들의 사용설명서



지금까지는 참여활동 및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컬러 DNA를 알아봤다면, 워크숍 후반부에는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고 이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자의 컬러 DNA 특성은 어떠한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본인의 성격적 특성을 팔각형 그래프로 그려보고 동료들과 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임을 공유하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다르기 마련이라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때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방과 트러블이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자 본인의 성격적 특성을 활용해 앞으로의 목표와 개선하고 싶은 부분, 오늘 발견한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정리한 컬러 프로필을 작성해 보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대표로 발표에 나선 김대우 상무는 “의사소통을 잘 하고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며, 회사 전체를 밝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동안에는 직원들과 항상 진지하게 업무 관련 이야기 위주로만 대화를 나눴었는데, 앞으로는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누며 직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다. 세심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 힘쓰는 특성을 발휘하여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임직원들 모두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점을 발전·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동료들 간에 유대감이 향상되어 더욱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워크숍 참여 후기



김대우 상무



CPA 워크숍을 통해 내가 가진 타고난 성향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 관계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 임현 매니저



다소 생소한 주제였지만,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경영지원팀 이해진 매니저



스스로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동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CPA 검사 결과지도 보며 각자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철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산팀 김관빈 팀장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팀 박찬원 매니저



CPA 성격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동료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업무 중 소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팀 김영주 매니저



이번 교육을 통해 저의 내면의 성격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팀 임택인 팀장



제 컬러 DNA 분석 결과, 레드 컬러가 많이 부족하게 나왔는데, 추진력과 실행력을 좀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편이다 보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씩이나마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업팀 김경민 매니저



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팀 김창우 매니저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제 자신도 몰랐던 저의 성격적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 스스로를 보완해 나가므로써 더 좋은 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심팩인들의 일상 들여다보기

심팩인들의 일상 속 순간을 담은 사진과 사연을 공유합니다.



## SIMPAC KDA 5공장 생산팀 안형주 사원

오늘도 무사히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씻으며 시원하게 피로를 풁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내일도 별탈 없이 무사히!



##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경영지원팀 이혜진 매니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광양에 해맑음(눈사람 이름)가 생길 정도로 눈이 와서 행복한 금요일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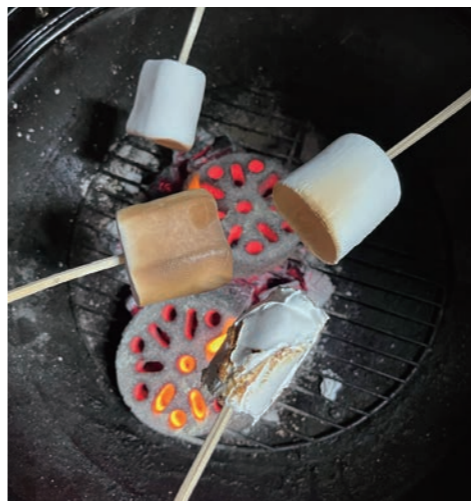
## SIMPAC글로벌 대구센터 현윤환 매니저

주말에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 대구 공항교 강변공원에 피크닉 겸 캠핑을 다녀와서 찍은 사진을 공유합니다.



## SIMPAC KDA 제조팀 허성만 기장

6개월 전 다시 시작한 탁구. 퇴근 후 주 4일 정도 열심히 레슨받고 연습 후, 2025년 3월 16일 김해시협회대회에 첫 출전하여 7부 리그에서 우승하였습니다.



## SIMPAC 기획관리부문 회계팀 신은정 매니저

재경실 독서 소모임 멤버들(신은정, 주혜원, 연승하, 조아영 매니저)과 파주에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파주출판단지 북카페들이 많아 저희 소모임에 딱 맞는 여행지였어요. 카페에서 소모임 활동을 마친 후,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해 고기에 술도 한 잔 하고,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형 매니저님께서 알려주신 보드 게임도 하고 신나게 수다도 떨었습니다! 초보 운전임에도 기꺼이 제 차에 타주고 같이 내비게이션을 봐준 동료분들께 감사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어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팀복을 맞춰와 소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 아영 매니저에게도 덕분에 더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SIMPAC 기획관리부문 경영지원팀  
**권순영 팀장**

바닷가 갈매기에게 새우깡 주는 모습입니다.



SIMPAC 기획관리부문 회계팀  
**나우정 매니저**

고생을 왜 사서 하나 싶었는데, 완주하고 보니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SIMPAC 메탈부문 포항2공장 ROLL영업팀  
**심성보 매니저**

태어난 지 100일된 딸과 첫 유모차 산책을 나가봤어요^^ 서울숲에서 예쁜 튜립도 보고 사진도 찍고, 행복이 봄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네요ㅎㅎ



SIMPAC 기획관리부문 HR전략팀  
**차지수 매니저**

주말에 친구들과 축구 보러 가기!



SIMPAC 프레스부문 서비스사업팀  
**최혁진 매니저**

서비스사업팀 사원급 현장직 및 관리직을 위해 김진호 상무님과 조현민 팀장님께서 소통의 시간을 겸한 회식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딱딱한 분위기의 회식이 될까 걱정도 있었지만, 상무님과 팀장님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저희를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기애에서 비롯된 애사심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무님께서 막내 시절 동기들과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도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상무님과 팀장님께서 너무나 반가워하시며 "바로 추진하라!"는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무님과 팀장님의 통 큰 지원과 격려 속에 저희는 3월에 을왕리로 동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기 여행의 콘셉트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추억 만들기'였고, 상무님과 팀장님이 준비해주신 상품과 지원 덕분에 해변길 트래킹, 족구 대결, 프레스 부품 몸으로 말해요(강력 추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열어 서로의 직장 생활에 대한 포부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끈끈한 관계로 발전했고, 불꽃놀이로 낭만도 더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김진호 상무님과 조현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모로 챙겨 주시며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서비스사업팀의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주말과 개인 시간을 내어 함께 추억을 만들어준 저희 서비스사업팀의 막내 동기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할게요! 사랑합니다! ♡♡ 서비스사업팀 화이팅! ♡♡



## 3년차 직원들과 함께한 '마인드셋 코칭'

### In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어느새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과 포부는 잊고, 그저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하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은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침표를 찍고, 역할 인식을 통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마인드셋 코칭' 클래스를 마련했다.

#### 조직 내에서의 나는?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고민해 본 시간

이날 '마인드셋 코칭' 클래스를 함께한 메탈부문 포항1·2공장에 근무하는 다섯 명의 직원들은 공교롭게도 입사한지 3년쯤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입사 3년차 정도가 되면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웬만큼 파악하고 익숙해진 한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기인데, 이날의 교육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리프레싱 할 수 있었다.

먼저 '요즘의 나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이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다.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5글자를 포스트잇에 적은 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 준비, 자녀 계획, 부동산 매매 계획 등 미래에 대한 고민부터 어느새 도전정신은 줄어들고 현재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나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반성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각자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입사연차도 나이 대도 비슷하다 보니, 서로의 고민에 공감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다음 순서로는 영화 <어벤저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본인이 만약 신입사원을 뽑는 최종 면접관이라면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중 어떤 캐릭터를 뽑을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봤다. 스마트한 아이언맨, 섬세하고 센스 있는 헐크, 힘이 세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는 토르, 정의롭고 포용력 있는 캡틴 아메리카 중 한 명을 골라 각각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어떤 성향의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성이 좋고 협력이 잘 되는 동료, 눈치가 빠르고 융통성이 있는 동료, 전문 지식을 갖춘 업무능력이 뛰어난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타인에게 어떤 동료일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업무의 다양성, 긍정적 마인드, 성실성, 정직함, 눈치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현재의 나에게는 몇 점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는 순서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며, 본인의 회사에서의 현재 상황과 일을 대하는 태도,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이 가진 잠재력(용기, 지혜, 친절, 야망)에 따라 기숙사를 배정해 주는 <해리포터> 속 마법 모자를 쓴다면 나는 어떤 기숙사에 배정받을지 생각해보며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기보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인드셋 코칭' 클래스를 함께하며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특별한 동기부여의 시간이었다.

### 클래스 참여 소감



포항1공장 메탈안전팀  
**정용환 매니저**

회사 조직 내에서 나는 어떤 구성원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금철사업팀  
**김도한 매니저**

조직 내에서 나는 어떤 구성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포항2공장 메탈안전팀  
**이한희 매니저**

'나는 타인에게 어떤 구성원인가?'라는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포항1공장 생산팀  
**전배준 매니저**

함께 참여한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각자의 고민과 생각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경영지원 2팀  
**조술범 매니저**

도전 정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 함께 뛰는 심팩



28 현장 속으로

34 ZOOM IN

38 NEWS

“규칙을 따르되  
과감하라”

- 필 나이트(나이키 설립자)



##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다

### SIMPAC KDA

SIMPAC KDA는 자동차의 '드라이브 라인'에 적용되는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메이커이다. 지난해 말 SIMPAC 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SIMPAC KDA 직원들을 만나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요 업무 내용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북미 등 해외 고객사에 자동차 드라이브 라인 부품 공급

드라이브 라인이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구동축, 차동장치, 바퀴 등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모든 시스템을 일컫는다. KDA는 Korea Driveline Autopart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드라이브 라인에 해당하는 부품을 생산해왔다. SIMPAC KDA는 드라이브 라인의 핵심 부품인 Propeller Shaft, Flange, Yoke 등 OEM 130여 종, AM 400여 종의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호주, 중국, 폴란드 등 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CNC, MCT, 브로치, 호빙기, 롤링기, 코팅기 등 600여 대의 가공설비로 타사 대비 기술 경쟁력이 높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IMPAC KDA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및 AM(After Market)용 차량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가장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은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SUV나 픽업트럭의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드라이브 라인에 적용되는 OEM 부품으로, 이를 다년간 여러 해외 고객사에 공급해 왔다. 상용 트럭이나 중장비에 적용되는 AM 부품도 꾸준히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전기차 모터에 적용되는 OEM 부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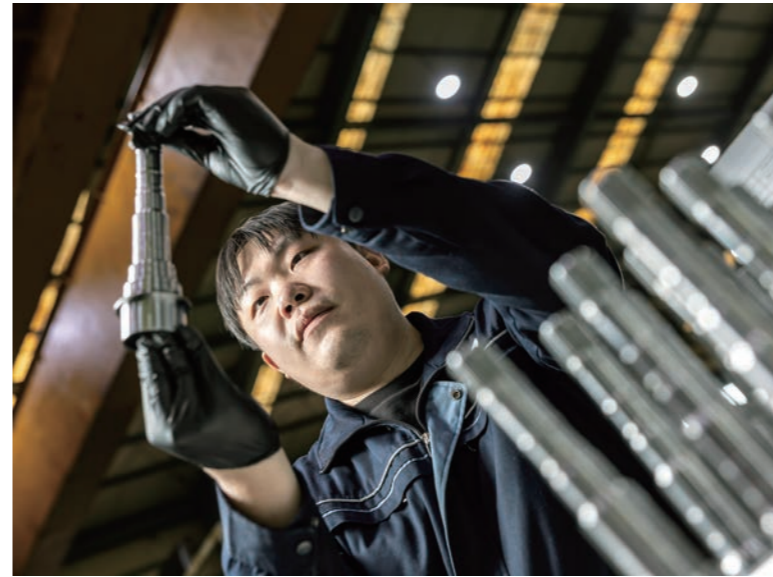
수주부터 양산, 공급까지...

부서 간 협력 프로세스를 통한 제품 생산

OEM 고객사로부터 영업팀에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제품개발팀은 도면, 공법, 부품 원가, 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산출한다. 프로토타입 샘플 PO(Purchase Order) 접수 후 샘플을 공급하며, 고객과 가격 협의 후 신규 프로그램을 수주하게 된다.

수주 이후 영업팀은 고객사와 이메일 및 컨퍼런스 미팅을 통해 각종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PPAP(양산부품승인절차)가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양산에 들어가도록 관리하고 있다. 양산 전 제품개발팀에서는 수익성 극대화 및 투자비 절감을 위해 공법을 설계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외주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규 외주 업체를 개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제품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한 사전품질계획(APQP)을 세워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프로토타입 샘플 제작 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양산 단계에서도 개선 가능하거나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MPAC KDA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들은 해상 운송을 통해 북미 등의 해외 고객사들에게 공급되어 조립된 후 완성차에 장착된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SIMPAC KDA의 공급 안정성이 흔들리면 완성차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 일정을 준수하여 고객사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해야 하고, 여러 고객사에 다양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해야 하는 만큼, 각 부서 소속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팀원들 간에 업무 내용을 깊이 공유하고 있다.



적기 납품 및 과잉 재고 방지를 위한 스케줄 관리

OEM 부품의 경우 영업팀에서 매주 변동되는 고객사 포캐스트(향후 물량 예측)를 파악하여, PSI(생산, 판매, 재고) 관리를 통해 생산관리팀 등 관련 팀과 매주 회의를 거쳐 생산 및 출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객사 직접 납품분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시카고, 멕시코 등에 위치한 현지 지사 창고에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고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하거나 과잉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의 퀄리티 및 납기일을 준수하고 있다. 원소재를 들여오고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 거래처에 수출·납품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4개월 전부터 예상 수량에 따라 생산 계획을 잡아야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다. AM 부품은 고객사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만큼의 생산을 요청받아, 역시 PSI 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관리하고 있다. 여러 고객사에 같은 형태의 부품이 납품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수주받은 품목들을 일괄 취합하여 필요한 생산 수량에 맞춰 원자재 및 부자재 발주를 진행하고 생산 일정을 수립한다. 로스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1회 생산 시 수량을 조정하여 생산하고 있다.



SIMPAC  
KDA





... 수출 지역 다변화,  
전기차 부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 기대

SIMPAC KDA는 일찍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업체들과 경쟁해왔으며,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문제 대응과 놀라운 회복탄력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거래처들이 모두 해외에 있다 보니 모든 의사소통이 영어로 진행되고, 시차로 인해 늦은 시간 컨퍼런스 미팅에 참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율해가며 다년간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고객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미 지역뿐 아니라 중국, 호주, 폴란드 등으로도 수출을 확장하며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완성차 시장에서 주요 고객사들과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매년 꾸준히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올해 1,200억 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 제품의 품질 안정화가 가장 큰 이슈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에서 전기차로 트렌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SIMPAC KDA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혼다 전기차에 공급되는 히타치아스테모 사의 전기차 모터 부품인 Rotor Shaft 개발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공정을 개선하고 공법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고객사와 협의 중에 있다. 그 외에 전기차에 적용되는 모터, 하프 샤프트 및 스티어링 부품 등 전기차 부품 생산 품목을 늘리기 위해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혼다 전기차의 Rotor Shaft 외에도 Ford F-150 시리즈의 하이브리드 버전에 들어갈 Slip Yoke 부품의 PPAP 및 양산을 앞두고 있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AM 파트의 부품을 B2B는 물론 B2C고객들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IMPAC KDA는 전기차 부품 생산 확대, 생산 품목 및 납품 지역 확대를 통해 2027년 1억 불 이상의 판매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으로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잡은 SIMPAC KDA의 꾸준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SIMPAC KDA 영업팀  
변창현 팀장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성상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이지만, 글로벌 해외 고객사들과의 직접 비즈니스를 통해 업무의 폭과 깊이를 키워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망 내에서 제가 하는 일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북미 시장에 주요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사와 SIMPAC KDA의 발전이 결국 제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SIMPAC KDA AM 생산관리팀  
박정용 팀장

제가 처음 입사했던 16년 전만해도 연 매출 규모가 10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1,000억 원을 넘겼을 정도로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저도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SIMPAC KDA로 제대로 첫발을 내딛는 첫해인 올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전기차용 부품 개발에 좀 더 역량을 모아,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 다. 회사와 함께 저 개인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SIMPAC KDA 제품개발팀  
정현우 매니저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좋은 제품은 혼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PM은 기획부터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소통 능력과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PM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ZOOM IN 1



## Martinrea사(社) 임원단 방문, 당사 제조시설 견학 및 MOU 체결



지난 4월 9일,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사 Martinrea(마틴리어)의 임원단은 SIMPAC 프레스부문의 공장들을 견학하고, 당사와 AI 기술 관련 MOU를 체결했다.

### 프레스 제조 공정 견학 통해 신뢰도 상승

Martinrea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SIMPAC과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SIMPAC 2,600톤 프레스를 구매한 이후 매년 SIMPAC에 대형 트랜스퍼 프레스를 발주하고 있으며, 탄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Martinrea의 임원단은 인천에 위치한 SIMPAC 프레스부문의 Assembly shop(부평공장-프레스 가공기, 조립공장), Gear shop(가좌기어공장), Frame shop(심팩이엔지-용접, 커팅라인)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SIMPAC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 시설들을 확인하고, 프레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이번에 SIMPAC을 처음 방문한 Martinrea의 임원들도 있었는데 자재 소싱부터 커팅, 용접, 열처리, 조립 등 프레스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SIMPAC이 생산하는 프레스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AI 기술 관련 MOU 체결 통해 상호 협력 다짐

SIMPAC과 Martinrea는 단순히 프레스를 사고 파는 고객사 관계를 넘어, 프레스 관련 AI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Martinrea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은 프레스 설비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감지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딥러닝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이 AI 기술을 향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는 데 함께하자는 취지로 여의도 심팩빌딩에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향후 프레스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해외영업팀 관계자는 "이번 Martinrea 임원단 방문을 위해 전 부서가 함께 총력을 다했습니다. 의전에 매우 신경 썼음은 물론, 생산팀과 유관부서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현장 정리, 페인트 도색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Martinrea 임원분들께서 이번 방문을 통해 SIMPAC의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Martinrea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조 시설 견학 및 MOU 체결을 계기로 양사의 신뢰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향후 신규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이번 방문 일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 ZOOM IN 2

## PERFUMER H Pop-up at 10 Corso Como Seoul



"The Perfumer's Workstation"

### Perfumer H, 국내 첫 팝업 행사 성황리 종료

SIMPAC아플리에의 첫 번째 브랜드 Perfumer H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팝업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팝업은 SIMPAC아플리에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의 정식 오픈(Grand Opening)에 앞서 소프트 오픈(Soft Opening) 형태로 마련된 특별한 자리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 중인 대표 셀렉트숍 10 Corso Como Seoul에서 진행됐다. Perfumer H는 향후 국내 최초 입점 리테일 파트너 10 Corso Como Seoul과의 협업을 통해 SIMPAC아플리에의 B2B 판매 채널 다각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미학과 가치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이번 팝업 프로젝트는 송웅 브랜드 매니저와 김태리 마케팅 매니저가 런던 본사 출장 중 방문한 Perfumer H 본점(Crawford St, London)의 지하 조향 공간, 즉 창립자이자 조향사인 린 해리스(Lyn Harris)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다. 두 매니저는 본사에 직접 해당 콘셉트를 제안하며, 새벽까지 협업을 이어간 끝에 런던 본점 특유의 공간감과 감성을 서울에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재현해냈다. 조향사 Lyn Harris는 서울 팝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던 조향 도구, 시향지, 아트 북, 도토리, 말린 이끼,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까지 손수 포장해 보내며 진정성 있는 글로벌 협업의 의미를 더했다. 공간 기획, 디자인, 가구 제작까지 SIMPAC아플리에 마케팅팀 주도 하에 진행되었으며, Perfumer H 본사의 디스플레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조향사의 워크스테이션



이션을 정교하게 구현해냈다. 또한, 엄준호 COO와 우현우 오퍼레이션 매니저는 제품 수급과 물류 전반을 총괄하며, 국내 화장품 유통 규정에 따른 국문 라벨링, 품질관리, RA 인증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밤낮없이 챙기며 팝업 운영을 전방위로 지원했다.

'The Perfumer's Workstation'이라는 테마로 5월 29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팝업은 조향사,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예술가 등 감도 높은 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Perfumer H만의 절제되고 세련된 감성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조향 데스크에 놓인 대표 향수 INK와 STEAM을 자유롭게 시향하며 에센셜 오일과 원재료를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Perfumer H가 추구하는 향의 본질과 조향 철학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행사 기간 동안 10 Corso Como Seoul을 위한 전 제품이 완판됐고, SNS 상에서도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런던 본사로부터 직접 "판매 수치뿐 아니라 소셜 노출까지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SIMPAC아플리에 팀이 기획한 이번 팝업 콘셉트는 Perfumer H 글로벌 10주년 캠페인의 핵심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현재 전 세계 매장에 순차 적용을 준비 중이다.

SIMPAC아플리에 관계자는 "이번 성공적인 소프트 오픈 팝업은 SIMPAC 임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다가오는 8월 초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정식 오픈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ZOOM IN 3

## SIMPAC그룹,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SIMPAC그룹은 2025년 4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인재 확보와 기업 홍보에 나섰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본 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포함한 110개 중견기업과 5,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개막식에서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는 서류와 숫자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소중한 인재이며 조화롭게 발전할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의 소명 의식과 후대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SIMPAC HR전략팀과 경영지원1팀은 채용 상담, 자기소개서 피드백, 실무 면접 팁 제공, 직무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70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SIMPAC 부스를 방문해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SIMPAC은 앞으로도 구직자의 니즈를 분석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단순한 채용을 넘어 구직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브랜드 체험 기회를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SIMPAC NEWS

SIMPAC STORY MAGAZINE 2025 VOL. 59

SIMPAC 메탈부문 & FE-SI부문

## SIMPAC 메탈부문 & FE-SI부문 소방안전훈련 실시



FE-SI부문 포항 남부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 실시

한편 지난 4월 22일에는 FE-SI부문 포항공장에서 포항 남부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대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초기대응, 대피유도, 화재 진압 등 전반적인 화재 대응 과정을 실천처럼 수행했다. 소방서의 전문 장비를 활용한 시연으로 생생한 체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메탈부문 포항1공장, 전 직원 대상 소방안전훈련 실시

지난 6월 10일(화), 메탈부문 포항1공장에서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실습, 초기 대응 절차 교육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훈련 전에는 공장 내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의 배치 현황을 상세히 안내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며, 평소 익숙하지 않았던 옥내소화전 작동법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포항1공장 박승배 공장장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방안전훈련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SIMPAC글로벌

## SIMPAC글로벌 대구·창원센터 합동 워크숍 진행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간, 강원도 평창군 용평 버치힐에서 SIMPAC글로벌 대구·창원센터 센터장 및 주요 관리자 8명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해 창원센터(동부)가 신규 계열사로 SIMPAC에 편입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두 센터 직원들이 SIMPAC글로벌이라는 이름 하에 회사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서는 인력 운영, 장비 유지, 고객 대응 등 이슈를 공유하며 센터 간 협업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센터의 강점을 서로 벤치마킹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장비·인력 등 공동 자원 운영, 계약 정보 공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크랩 수용, 직원 서비스 및 현장 친절, 원거리 업체 개발, 야드 확장 및 인력 충원 등 현재 SIMPAC글로벌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다.

단순한 토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방안까지 논의되어, 실무진들은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장비 노하우, 고장 대응 매뉴얼 공유, 장비 생산라인 상호지원 등 생산·운영 부문에서의 협력을 약속했

으며, 센터 간 납품 유리성을 고려하여 납품 지점 및 배송경로를 최적화하고, 각 센터의 제강사별 사항, 납품 조건 등을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더불어 월 1회 조직활동을 통한 직원들 간 소통 문화 구축, 근무 환경 및 조직 분위기 개선, 우수사원 포상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직무 역량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동호회 및 취미모임과 같은 사내 커뮤니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 이후에도 정기적 교류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실무자 중심의 TF 구성이나 공동 KPI 설정 등 체계적인 연계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창원센터(동부) 이익호 센터장은 "각 센터가 처한 환경이 다름을 인지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서로 상대 센터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SIMPAC글로벌의 눈부신 성공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대구센터 사업지원팀 최윤오 매니저는 "서로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상 고민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센터 간 허심탄회한 교류가 이뤄져 좋았다"며 "SIMPAC글로벌 김중호 사장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가 현장 목소리에 대한 경청의 의지로 느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 마음을 나누는 우리



- 42 찾아가는 클래스
- 46 트립 내비게이션
- 50 직장인 성장 노트
- 54 북클럽
- 56 TREND
- 58 우체통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 윈스턴 처칠



# 실무에서 바로 쓰는 AI 활용법

## In 여의도 심팩빌딩

이미 많은 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챗지피티 등 AI를 활용하고 있다. AI가 없는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지금, AI를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여의도 심팩빌딩에서는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AI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열려 참여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AI의 종류부터 프롬프트 작성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법까지 실전 활용법 학습

누구나 쉽게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요즘이다. AI 기술 활용 정도에 따라 업무 생산성에 있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사무직들의 경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내 보안 규정만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AI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찾아가는 클래스'에서는 SIMPAC 임직원들을 위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AI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마련했다.

오늘날 AI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강의에는 기획관리 부문, 트레이딩부문, SIMPAC KDA 경영지원실 소속 등 여의도 심팩빌딩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여자 전원이 챗지피티를 사용해봤다고 답했으며, 클로드와 퍼플렉시티를 사용해봤다는 직원도 2~4명 정도 됐다.

챗지피티, 클로드 등의 대화형 AI는 LLM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LLM이란 Large Language Model(대규모 언어 모델)의 약자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수업을 통해 가장 대표적인 AI인 챗지피티 외에도 클로드, 제미나

이, 라마, 그록, 미스트랄, 에이닷, 딥시크 등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AI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봄으로써 언제, 어떤 AI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AI 사용을 위해 유료로 결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무료 플랜으로도 고퀄리티의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AI들을 번갈아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AI 종류별 특징

<b>Chat GPT(챗지피티)</b>	OpenAI가 개발한 대표적 AI.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고퀄리티의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월 3만 원 이상으로 가장 비싸다.
<b>Claude(클로드)</b>	자연스러운 대화와 고급 언어 이해 능력을 갖췄으며 한글 처리 능력이 우수해 글쓰기를 잘한다.
<b>Gemini(제미나이)</b>	구글이 개발한 AI. 다양한 구글 서비스와 연동되며 최신 버전은 업계 최고 수준. 무료로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b>Llama(라마)</b>	메타가 만든 오픈소스형 AI. 일반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하여 나만의 AI를 만들 수 있다.
<b>Grok(그록)</b>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만든 AI. 실시간 X(트위터)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 최신 정보와 유행어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b>Mistral(미스트랄)</b>	프랑스에서 만든 AI. 챗지피티에서는 유료로 지원되는 기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b>에이닷</b>	SK텔레콤의 AI 기반 개인 비서 서비스로 챗지피티,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등 12종의 LLM을 통합 제공한다.
<b>DeepSeek(딥시크)</b>	화제의 중국발 AI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유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었다.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인턴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듯이, AI에게도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요소

Persona (역할 지정)	Task (작업 요청)	Context (맥락)	Object (목표)	Fewshot (출력물 예시)	Format (형식)
AI에게 특정 역할 부여	수행해야 할 작업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작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맥락 제공	본 작업의 목표 제시	참고 문서 양식 제공	단락 구조, 표, 그래프 등 출력 형식 지정





### 실습을 통해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 전수받아

각자의 노트북 컴퓨터로 데이터 분석법 실습도 진행했다. AI가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지침을 내리고, 분석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효과적인지, 앞서 설명한 다양한 AI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미국의 퍼플렉시티, 일본의 펠로, 중국의 젠스파크와 같은 AI 기반 검색 엔진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강사의 시연과 실습을 통해 다양한 AI의 발전된 기술력을 확인한 참여 직원들은 기술력에 감탄하는 한편,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AI의 등장과 확산으로 세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이다. AI 시대의 도입기에 있는 지금, AI 활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이날의 강의를 직원들의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내부 생성형 AI 도구 사용 정책

최근 ChatGPT, Gemini, Claude, GitHub Copilot 등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 내부 정보의 유출 방지와 안전한 기술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도구 사용 정책을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안내드립니다. 사내 기간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모든 임직원은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책 내용

##### \*민감 정보 입력 금지

- 고객 개인정보
- 회사 내부 전략, 정책 문서
- 소스 코드 및 설계 도면 (전체 또는 핵심 로직)
- 내부 시스템 구성, 보안 설정
- 인사/재무/계약 정보 등

##### \*설계 도면 및 소스 코드 활용 유의사항

- 오류 해결 목적으로 일부 설계 자료 및 소스 코드 문의를 일부 가능
- 다만, 회사 내부 핵심 기술 자료 및 주요 로직 입력은 금지

##### \*파일 업로드 금지

- 회사 관련 문서, 데이터, 이미지 등의 업로드 금지

##### \*정책 위반 사항

- 비인가 외부 전송, 무단 AI 민감 자료 유출은 정보보호법 및 사내 보안 규정 위반으로 간주

##### \*사용 기록 관리 및 모니터링 [IT팀]

- 사내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 생성형 AI 사용 이력 로그 수집

## 클래스 참여 후기



### AI LAB 윤상현 매니저

챗지피티 뿐 아니라 다양한 AI 툴과 우수한 기능들을 소개해주신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PPT 생성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몇몇 툴의 경우 처음 출시했을 때 이슈가 되어 사용했는데 성능이 기대 이하라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을 통해 몇달, 며칠 사이에 성능이 엄청 업그레이드되어 있음을 확인해 놀랐습니다. AI는 출시됐다고 끝이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R전략팀 차지수 매니저

챗지피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AI 툴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분께서 직접 AI 툴마다의 활용법을 보여 주시고 실습을 통해 강의를 진행해서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업무 진행 시에도 잘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증진하고 싶습니다.



### HR전략팀 이재호 매니저

많이 알려진 AI 모델 외에도 최근에 업데이트 된 AI 모델들을 소개해 주셔서 신선했습니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많아 업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IT팀 서서영 매니저

여러 AI 모델을 소개해주신 것도 좋았지만, 각 모델을 직접 실습해보며 기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몇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보고서, 계획서, 심지어 PPT까지 빠르게 생성되는 것을 보며,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챗지피티를 사용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클라우드,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특화된 용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용, 문서 작성용, 다이어그램 제작용 등 상황에 맞는 AI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IT팀 이혜원 매니저

강사님께서 직접 AI를 통해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프롬프트 체계를 구축한 것이 느껴져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AI별 특징을 알아가면서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무 특성에 맞는 하나의 AI만 사용했는데, 목적에 맞는 AI를 활용한다면 더 나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매우 신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IT팀 조대형 매니저

단순한 이론 강의일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AI 솔루션을 비교하고 설명해주셔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들이 많아 특히 유익했습니다. 평소 AI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실사용자조차 간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이상의 실용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업무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트레이닝사업팀 김효리 매니저

업무 상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AI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에 초점을 맞춘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정리하여 필요한 팀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열차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

SIMPAC 사업장 근처의 가볼 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코너 '트립 내비게이션'. 이번 호에서는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바닷가 관광지들을 소개한다.



##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습지

순천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되었으며, 이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양한 테마의 정원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 오래 걷기 힘들다면 관람차를 타고 감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린이동물원,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테라피 가든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하다. 정원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를 타고 순천만역에 내린 다음, 갈대밭을 따라 1km가량 도보로 이동하거나 갈대열차를 타고 순천만으로 진입하면 된다.

순천만 습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이다. 갈대숲 탐방로나 맨발 걷기 길인 어싱길을 따라 걸으며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순천만 갯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 장관이다. 순천만 생태체험선을 타면 드넓은 순천만의 갯벌과 갈대군락, 다양한 철새와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도 있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당일에 한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두 군데 모두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 10,000원, 청소년·군인 7,000원, 어린이 5,000원이며 순천시민 할인, 단체할인 등이 있다.



### 순천만국가정원

주소: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입장시간: 9-20시(19시 입장 마감)  
 문의전화: 061-749-3114  
 홈페이지: scbay.suncheon.go.kr/garden



### 순천만습지

주소: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입장시간: 8-19시(5-8월), 8-18시(3-4월, 9-10월), 8-17시(11-2월)  
 문의전화: 061-749-6052  
 홈페이지: scbay.suncheon.go.kr/wetland



사진 출처. 순천여행,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습지 홈페이지

## 창원 진해

KTX 정차역인 창원중앙역에서 내려 택시로 30분 정도면 진해해양공원에 도착한다. 진해해양공원에는 세계의 해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전사체험관과 해군의 함상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군함전시관, 바다 생태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생물테마파크 등이 있어 생생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진해항 쪽으로 이동하면 유람선이나 각종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진해루에 오르면 진해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진해루 주변으로 해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바닷바람 맞으며 산책하기에도 좋다. 진해루에서 좀 더 북쪽 도심 방향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경화역이 있다. 진해 군항제가 열릴 때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경화역 공원은 벚꽃 철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워 둘러볼 만하다. 벚꽃나무가 만든 터널 아래 기차길에 서서 사진도 찍고, 경화역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조성된 경화역 미니역사에서 옛 경화역의 감성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 진해해양공원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입장시간: 9-18시(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전화: 055-712-0425  
 홈페이지: www.cwsisul.or.kr/\_jhmmapark



### 경화역 공원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



사진 출처. 창원관광

### 진해루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42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부산에서는 해운대, 경포대, 태종대, 이기대, 송정해수욕장, 기장 해변 등 다양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부산 바다의 새로운 매력을 즐기고 싶다면, 도심에서 멀어 비교적 찾는 사람이 적고 노을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를 추천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행선의 종점인 '다대포해수욕장'역에 내려 조금만 걸으면 바로 해수욕장이 나온다. 다대포해수욕장에는 다대사막이라 불릴 만큼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해질녘이면 하늘부터 백사장까지 붉게 물들며 장관을 이룬다. 해변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과 일몰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SNS 인증샷 명소 및 출사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해변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아미산 전망대'

가 나오는데, 붉은 노을에 물든 다대포 해안과 낙동강 하구의 모래톱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야외 전망대는 물론, 실내에서도 편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 및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아미산 전망대는 부산 탐방로인 '갈맷길 4코스 3구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갈맷길을 따라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 물운대에서 출발해 아미산을 타고 낙동강하굿둑까지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여름이면 해수욕은 물론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 (busanddp.co.kr)를 통해 서핑, 패들보드, 웨이크보드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산책 및 소풍을 즐기기에 좋은 해변공원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가볼 만하다.



**다대포해수욕장**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운대길 14

**시흥 오이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에 가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수도권지하철 4호선을 타고 오이도역에 내려 버스로 조금만 이동하면 된다. 낮에는 푸른 바다와 오이도항의 상징인 빨간 등대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고, 저녁이면 바다가 붉게 물드는 해넘이 풍경이 장관이다. 오이도포구해양관광단지에서 조개구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다. 한편 오이도는 서해안 최대의 패총유적지이자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흥오이도박물관&선사유적공원'에 가면 선사시대 해안생활문화유산 및 당시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시흥 오이도 박물관&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주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02-6 /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13-27  
입장시간: 10-18시(매주 월요일 휴무) / 9-18시  
문의전화: 031-310-3052 / 031-488-6909  
홈페이지: oidomuseum.siheung.go.kr

사진 출처: 시흥시청, 시흥 오이도 박물관&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 VISIT BUSAN

# '일잘러'의 비결, 단순하게 효율적으로



유독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하여, 단순하지만 효율적으로 명쾌하게 일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기획, 글쓰기, 말하기,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일잘러'가 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1. 단순하게 기획하기: 언제나 WHY 먼저

기획 부서에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가지 일을 기획한다. 기획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획을 할 때에는 WHY(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WHAT(무엇)을 목적이라 착각하고, WHY 대신 WHAT이나 HOW(방법)에만 연연한다. '이 기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기획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저절로 이어져 나오기 마련이다.



### 직원 채용 업무를 맡았다

#### ① WHY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인재를 채용해 키워야 한다!

#### ② HOW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능은?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 ③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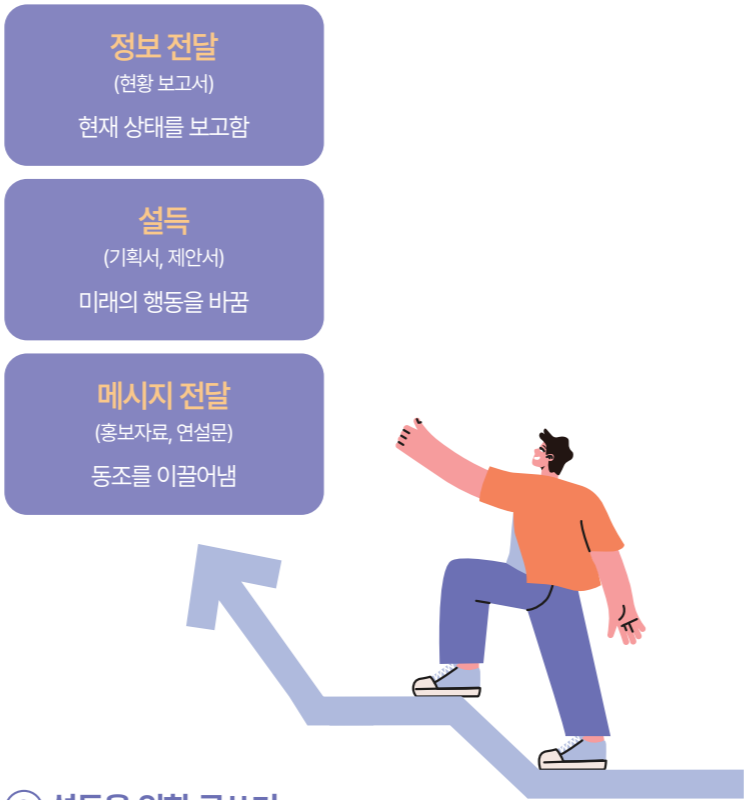
어떤 직무에서 각각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할까? 채용 박람회 스케줄 확인 및 준비사항 검토, 신규직원 교육 프로그램 스케줄 및 내용 검토 등



## 2. 단순하게 글쓰기: 글의 목적에 따른 작성법

직장에서의 글쓰기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하다. 때문에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필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글을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 즉 어디에 필요한 글인지에 따라 논점을 다르게 작성해야 한다.

비즈니스 글쓰기는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 ①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많다고 해도 긴 보고서를 꼼꼼히 다 읽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구두로 보고할 때도 핵심만 짚어 전달할 수 있다.

####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기본 구성

제목	제목에 대한 요약 (2~3줄)
A항목: 한 줄 요약	근거 자료
B항목: 한 줄 요약	근거 자료
C항목: 한 줄 요약	근거 자료

### ② 설득을 위한 글쓰기

기획서나 제안서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다. SWOT, 4C, 4P 등 분석 프레임과 로직 트리 등을 활용하여 생각을 다각도로 펼치고, 왜-무엇을-어떻게-기대하는 점 순으로 주장을 정돈해보자.

### ③ 메시지를 전달을 위한 글쓰기

연설문이나 보도자료 등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확실히 남을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핵심 메시지와 그와 관련한 스토리 세 가지 정도를 전달하는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도자료를 보면 제목이 핵심 메시지가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 세 가지 정도를 본문 상단에 적어(리드문) 그것만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3. 단순하게 말하기: 의사소통 시 서로 간의 생각의 오차를 줄이는 법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척하면 척' 하고 생각이 통하면 좋겠지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원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해,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소통 중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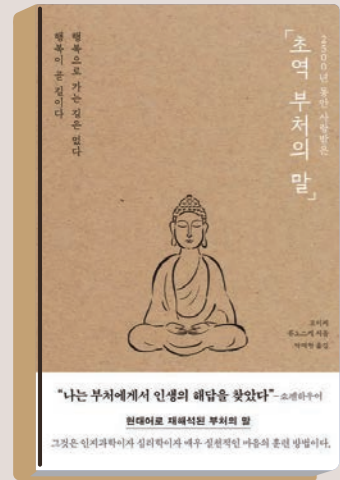
- ①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로젝트 기간이 길다면 중간 보고를 통해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 ②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물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그려주는 것을 추천한다.
- ③ 보고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부터 두괄식으로 하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④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겠다면 '지금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자. 에둘러가며 비슷한 답변들만 하다 보면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고,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야 한다.
- ⑤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대신 숫자를 사용하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보다는 '4시 전까지 드리겠습니다'가 훨씬 깔끔하다.
- ⑥ 같은 숫자라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원래 3%였던 것이 15%가 되는 것과 30%였던 것이 15%가 되는 것은 다르다. 때문에 숫자에 해석을 더해주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진다.

## 4. 단순하게 관계 맺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일처리를 단순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인간관계를 단순화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관계에 연연하기 보다는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도면 된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는 암묵적인 '선'이 있기 마련인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동료의 부탁을 잘 거절하고, 단순 질책이 아닌 막말에 가까워지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 유명인사들이 선택한 책, 셀럽의 서재

이번 호 '북클럽'에서는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이 추천한 책들을 소개한다. 무슨 책을 어떠한 이유로 추천했는지 확인해보고, 마음에 와닿는 책을 골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인기 아이돌 가수 장원영이 방송에서 언급하며 큰 화제를 얻은 이 책은,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말들을 현대어로 풀어 썼다. 간결하게 핵심만을 담은 부처의 메시지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2,500년 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온 부처님의 190가지 말씀을 담은 이 책은 복잡한 세상살이에 지친 현대인을 위로하는 동시에 삶의 지혜를 전한다.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나 힘에 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럴 때 그 책을 몇 소절 읽으면 세상에 화낼 일이 없어요. 그래도 화는 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책을 다시금 읽으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돼요.”  
-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리커넥트』 장재열, 저스피스

흔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하면 은둔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나 번아웃, 우울증, 외로움 등을 느끼는 상태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히 사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와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고립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다. 전 국민 중 3분의 1이 고립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1년간 상담가로 활동하며 4만 4천여 명을 만나온 저자는 고립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고립에 대한 오해를 짚어낸다. 그는 고립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만나는 '마음이 외판 상태'라고 짚어낸다. 상담을 통해 고립이라는 늪을 빠져나올 힌트는 '연결의 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저자는 고립이란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고립을 겪고, 주변인이 고립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책 안에 담아내어 흔들리는 독자의 삶에 위로를 더한다.

“누군가에게 그 무엇도 터놓을 수 없어 홀로 자신을 가둔 채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외톨이가 된 상태일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그 손을 ‘연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의 음악 또한 누군가에게 손길이 되어 당기를 바라듯, 이 책 또한 그 손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립이 퍼지는 대신 사랑과 평화가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이 책을 권합니다.”  
- 가수 지드래곤



『더 커밍 웨이브』 무스타파 술레이만, 한스미디어

'알파고'의 개발자이자 세계 최고의 AI 회사 중 하나인 '딥마인드'의 공동설립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쓴 이 책은 AI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화제작이다. AI 기술이 일상생활을 파고들며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물결'이 다가온 지금, AI 혁명을 이끌어 온 인물 중 하나인 저자가 직접 AI 산업의 미래를 예측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을 과연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대미문의 시기를 향해가기 위한 최고의 안내서”  
- Microsoft 창업주 빌 게이츠



『인생의 모든 의미』 존 메셜리, 필로소픽

이 책은 쇼펜하우어, 비트겐슈타인 같은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인지과학자, 진화생물학자, 이론물리학자, 신학자, 심리학자, 소설가, 시인, 미래학자 등 삶의 의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견해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종교적 답변,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답변, 허무주의적 답변, 자연주의적 답변 등 답변의 범주에 따라 구분해 놓았다. 나아가 과학기술이 죽음을 제거할 경우 삶의 의미에 대한 인류의 문제제기가 어떤 중대한 변화를 맞을지 트랜스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 삶이 궁극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우리 집 거실 소파 옆에는 협탁이 있는데, 거기에 늘 이 책이 놓여 있다. 나는 가끔 이 책을 펼쳐 아무 페이지나 읽어보고 한다. 어느 날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합리적 결심만으로는 삶을 버틸 수 없고, 충분한 증거가 없어도 선의 궁극적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는 존 코팅엄의 주장을 마주친다. 어느 날은 대답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며 따라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행위 역시 무의미하다는 폴 에드워즈의 견해를 맞닥뜨린다. 나는 코팅엄이나 에드워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쉽게 반박하지도 못하기에,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생각한다. 큰 질문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는 성서를 조금씩 읽으며 묵상하는 습관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 작가 장강명



『면도날』 서머싯 몸, 민음사

『달과 6펜스』의 작가 서머싯 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인간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탐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인공인 래리는 1차 세계대전 참전 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깨달음을 쫓아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난다. 작가는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래리와 주변인들을 삶을 통해 삶의 다양한 가치 중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특유의 명쾌한 문체와 유머를 잃지 않는다.

“1년에 딱 한 권의 책만 읽는다면 이 책을 고르겠다.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 어지러운 물음표의 답을 찾기 위해 1년이 아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 어쩌면 1년에 한 권만이 아닌 이 한 권 '밖'에 못 읽을지도.”  
- 배우 문가영

#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물성매력



이제는 많은 일들을 비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이지만, 오늘날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경험과 감각을 추구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넘어, 실제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물리적인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에 물성매력(the Appeal of Materiality)은 앞으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것이다.

## ‘물성매력’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 소비자

디지털·가상·엔택트 기술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그 반작용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갈망하게 되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우리는 어쨌든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에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올해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물성매력’을 선정했다. ‘물성매력’이란 상품, 공간, 콘텐츠 등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특성이 소비자에게 정서적 만족과 몰입감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몇 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열어 브랜드의 특성을 드러내는 콘셉트로 꾸민 공간,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물성매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방식의 일환이다. 또한 쌍방향 소통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물성매력’을 강화하고 있다. 누구나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낀 대상을 더욱 인상적으로 오래 기억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사물 본연의 감각을 느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물성매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는 최근 마케팅의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최소화되었던 팬데믹 이후, 현장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 공연, 전시, 축제, 원데이 클래스 등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졌다. 모두 디지털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종이책, 문구류, 필름 카메라, LP, 카세트 테이프 등 아날로그 감성을 더하는 제품을 찾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실체가 있는 대상에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수록 ‘물성매력’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합’하게 느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 ‘물성매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사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팝업 스토어’ 방식 외에도 ‘물성매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공개 전 홍보 프로모션을 위해, 드라마 속 게임 진행 요원인 핑크가드 복장을 한 이들이 전 세계 도시 곳곳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며 세계관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선보인 ‘우체국 용돈 배달 서비스’도 ‘물성매력’을 강화한 마케팅 사례 중 하나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용돈 배달 서비스를 통해 용돈을 보내면, 집배원이 직접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용돈을 전달해드리는 방식이다. 용돈 봉투를 물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계좌이체로 용돈을 보내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감동을 더한다.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브랜드 경험(BX)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굿즈도 관심을 받고 있다. 브랜드 굿즈는 브랜드의 철학과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콘셉트를 담아내는 물건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토스’는 금융생활 관련 질문 100가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금융 상식을 담은 책 ‘더 머니북’을 출시하며 브랜드 지향점을 적절히 구현했고, 해당 도서는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오비맥주의 ‘한맥’은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거품기와 전용잔을 출시했는데, 캔 위에 거품기를 장착한 후 맥주를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생맥주와 같은 부드러운 거품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물성매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성매력은 디지털과 시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물리적 실체’를 갈망하는 본질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향후 디지털·가상·엔택트 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물성매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책 『트렌드 코리아 2025』 중에서



# SIMPAC그룹 사보 독자 참여 이벤트

SIMPAC그룹 사보 2025년 상반기호를 읽고, 책 속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아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사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위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2025년 8월 14일 응모 건까지)  
정답을 맞으신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멘토링 클럽'에서는 SIMPAC 프레스부문의 조립2반,   
■■■■■■ 직원들을 만나 선후배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빈칸에 들어갈 팀 이름은?

2



'팀빌딩 워크숍'에서는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를 찾아 ■■■■ 검사를 통한 팀빌딩 시간을 가졌다. 빈칸에 들어갈 알파벳 3글자는?

3



'현장 속으로'에서는 지난해 11월 SIMPAC그룹에 합류한 SIMPAC KDA를 소개했다. SIMPAC KDA는 자동차의 ■■■■ ■■■■에 적용되는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KDA의 D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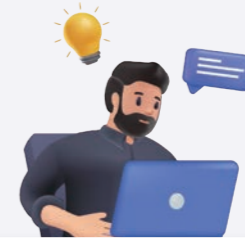
4



디지털·가상·연택트 기술의 발달에도 오늘날 소비자들은 오히려 ■■■■을 추구하며 물질적 경험과 감각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선정한 올해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기도 한 이것은? ('TREND' 참고)



## 지난호 독자 후기



###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경영지원팀 이해진 매니저

글로벌, KDA, 아틀리에 같이 신 사업부문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아요!!  
다른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 싶어요.

### SIMPAC글로벌 생산팀 현윤환 매니저

유익하고 좋은 현장촬영이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임해보고 싶습니다.

### 프레스부문 자동화팀 신앙하 연구원

다양한 콘텐츠들과 더불어 그룹 내 타계열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 프레스부문 생산팀 전기제어PART 최대욱 사원

사보를 통해 SIMPAC 직원분들의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기획관리부문 P팀 송치문 매니저

신규 계열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사보를 기대합니다♡



### 프레스부문 품질경영팀 김세진 매니저

계열사의 다양한 행사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만한 축제를 소개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 메탈부문 생산팀 임일훈 반장

성장하는 SIMPAC 신규 계열사 소개와 심팩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직원 참여 EVENT

# SIMPAC人 여러분의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위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SIMPAC人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업로드 해주세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 퇴근길 풍경, 퇴근 후 취미 생활 및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모습 등 무엇이든 OK!

## 참여 기간

2025년 10월 31일까지

## 당선작 발표 및 상품 안내

당선작은 2025년 하반기호 사보에 공개되며, 상품은 하반기호 발행 후 발송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스타벅스 1만원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